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활동가이자 사회 공헌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 동문을 만나 그가 자립준비청년의 편견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들어본다.



국제 학관식당은 식수인원이 2배 가량 증가하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그 이유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알아본다.

대학주보



설렘 가득, 새 학기 시작을 알린 동아리 박람회

양 캠퍼스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됐다. 서울캠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청운관 앞마당에서(위 사진 두 장), 국제캠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대운동장에서(아래 사진 두 장) 열렸다. 이수 아(한약학 2025) 씨는 “글로만 봤을 때는 무슨 동아리인지 몰랐는데, 직접 와서 들어보니 자세히 알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양명호(생물학 2023) 회장은 “작년에는 참가한 동아리가 30개 내외였는데 올해는 43개 정도가 참여했다”고 설명하며 동아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사진=김유경, 원희재 기자)

학생 여론 조사

등록금 인상분 “장학금·인프라 투자해야” 대학 “국가장학Ⅱ 대체 장학 마련 중”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올해부터 인상된 등록금으로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됐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신문은 등록금 인상분 재투자 분야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예산팀과의 인터뷰로 추후 등록금 추가분 사용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아봤다.

등록금 인상분 인프라 개선, 장학금에 재투자

우리신문은 등록금 인상분 재투자에 대한 학생 의견을 듣기 위해 인포21 설문 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총 317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등록한 등록금 인상분 투자 영역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대분류 4개(교수연구, 교육여건, 학생성과, 평판도)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그중 교육여건과 관련해 학생과 밀접한 장학금, 해외 교류, 교내 인프라 개선 영역을 추가했다.

이에 투자 분야를 ▲장학금 확대 ▲해외교류 확대 ▲교내 인프라 개선 ▲학생 성과 지원 ▲학교

평판도 제고로 나눴다.

투자 분야는 다시 분야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어떤 항목에 특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건물 보수 및 장소 확보와 장학금 확대에 등록금 인상분을 투자해야 한다는 학생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분야는 139명(43.8%)이 선택한 ‘교내 인프라 개선’ 분야였다. 다음으로 115명(36.3%)이 ‘장학금 확대’ 분야를 선택했다.

‘교내 인프라 개선’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관한 질문에 155명(48.9%)의 학생들이 ‘건물 보수 및 장소 확보(자율

학습공간 마련, 노후 건물 수리 등)’ 항목을 선택했다. 그 뒤는 ‘교육여건 강화(우수 교원 채용, 학생수가 적은 강의 확대 등)’ 항목에 77명(24.3%)이 응답했다.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보수는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문과대와 청운관 지하 보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아직 우선순위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3면에 계속 →

우리학교 의대생 복귀 요원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할 시 2026학년도 증원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아직 우리학교 의대생 복귀는 요원한 상태다.

지난 7일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건은 의대생 전원 복귀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 시 의대 교육 방식으로 총 4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모델이다.

하지만 우리학교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는 현재 온라인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학기 예과 24학번, 25학번 220명 중 수강 신청 인원은 1명, 본과 1학년은 3명에 불과했다. 총장실 역시 “의대생의 복학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타대학 등의 반응을 살펴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학장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관련 사안에 답을 듣기 위해 의대 학장과 행정실에 문의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안한 의대 교육 모델

모델1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모델2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모델3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
모델4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